"여전히 '나를 지우는 작업' 어려워… 오래 연기하고파"

스타인터뷰 드라마 '데릴남편 오작두' **김 강 우**

"극적인 상황에 희열을 느끼는 장르물에 반해 멜로는 쌓아가는 감정과 그 순간 섬세한 연기가 필요해요. '데릴남편 오작두'는 특히 (감정적인) 디테일을 살리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오글거리는 장면이라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기 위해 그 상황을 진심으로 대해야 했죠. 또 대본에 충실하면서도 순박한 시골 남자 오작두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해 구제시장에서 옷도 구입해서 입고, 전라도 사투리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대중의 뇌리에 차가운 도시남으로 남아있던 배우 김강우가 MBC 주말드라마 '데릴남편 오작두'를 통해서 '힐링남', '멜로킹', '자연인'이라는 키워드를 남기며 인생캐릭터를 남겼다. 그는 순박한 시골 남자 '오작두'부터 가야금 명인의 유일한 후계자인 '오혁'까지 1인 2역과도 같은 캐릭터를 빈틈없이 연기했다. 더불어 한승주(유이)만을 향한 직진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하며 멜로킹의 면모를 입증했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강우는 "단순히 캐릭터 하나만 보고 참여한 작품"이라며 "산 속에 살고,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기존 멜로와 다른 형태를 보여서 매력적이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종영소감을 밝혔다.

사실 수많은 남자배우들 중 가장 도회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김강우가 순박한 시골 남자로 변신을 예고했을 때 많은 이들이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는 맞춤옷을 입은 듯 정확한 캐릭터 분석을 통한 열연으로 인생캐릭터 갱신은 물론 흥행 요정으로까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작가님과 이야기했던 부분은 산속에서 15년 살던 인물이 도시로 왔을 때의 느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전에 안 입던 옷도 활용하고, 사투리도 배웠어요. 작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인데, 한승주라는 인물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죠."

MBC'데릴남편 오작두'

'힐링남'·'멜로킹'… 인생캐릭터 갱신
막장같은 극적요소 없는 '차별화' 느껴
세속녀·순수남 청정멜로, 힐링 받아

'데릴남편 오작두'는 극적인 설정 없이도 팍팍한 현실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의 공감을 샀다. 자극적인 소재와 개연성 없는 전개로 일명 '막장 드라마'가 주를 이뤘던 주말극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김강우는 "이른바 '막장'이라고 불리는 극적인 요소가 없는 작품이라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인물들도 자극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위로, 위안을 받는 이야기였다. 중간중간 닭살 넘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귀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킹엔터테인먼트

도시 세속녀와 산골 순수남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준 청정 멜로는 오작두를 연기한 배우 김강우 역시도 힐링받게 했다고.

"촬영하면서 저도 힐링한 기분이에요. 항상 도시에서 촬영하다가 산에서 삶을 사는 사람의 연기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드라마를 볼 때 만큼은) 팍팍한 도시의 삶은 잠깐 제쳐두고 많은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잖아요."

2002년 영화 '해안선'으로 데뷔해 어느덧 16년차에 접어든 김강우는 여전히 '나를 지우는 작업'이 어렵고,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작품 제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나를 지우는 일'이다"라며 "내가 보이지 않아야 그 캐릭터가 오롯이 선다. 그래서 평소에도 내 성격을 잘 모르고 살려고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데릴남편 오작두'같은 작품의 경우는 초반에 옷차림, 발성, 걸음걸이 등을 다 바꾸려고 했다. 그러한 진심이 통했을 때 대중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지금껏 긴 공백 없이 힘차게 달려온 그는 계속 쉼 없이 연기하는 성실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도 말을 보탰다.

"길게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5년 단위로 끊어서 얼마동안 이 사람의 행보가 어떤지 살펴보면 저 역시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사실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기도 하고. 취미도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생백수거든요(웃음). 연기할 때만이라도 가치있는, 쓸모있는 인간이고 싶어요."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저소득층 '무료 인공관절' 수술 수혜자 모집

KBL-희명병원

'사랑의 3점슛 캠페인' 적립기금 50%
나머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탁

KBL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KBL과 희명병원은 '2017-18시즌 '사랑의 3점슛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기금으로 무료 인공관절 수술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랑의 3점슛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총 4275만원이다. 이 중 50%는 인공관절 수술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오는 11월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지정기탁(금천구)할 예정이다.

이번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술비 전액이 지원된다.

퇴행성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맞닿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운동 범위 감소로 인해 보행 및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특히 말기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연과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김민서 기자

음악 꿈나무 위한 '스마일 뮤직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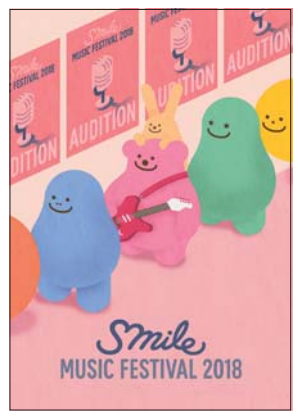
SM엔터테인먼트

5개월 이상 활동한 동아리 대상 모집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음악 축제 'SMile Music Festival 2018'(스마일 뮤직 페스티벌 2018)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은 'SMile Music Festival'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SM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이번 'SMile Music Festival 2018' 참가 신청은 수도권 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에 소속돼 5개월 이상 활동한 밴드, 댄스, 합창 동아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MTOWN 공식 홈페이지와 SMile Music Festival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3개월의 연습 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와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는 물론, SM 소속 아티스트 강타, 트랙스(TraxX)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오는 11월 23일 서울 삼성동 SMTOWN 코엑스 아티움에서 합동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SM은 지난 2014년 사회공헌 브랜드 'SMile'(스마일)을 론칭, 'SMile Music Festival'을 비롯해, 임직원 정기봉사활동, 아티스트 재능기부, 아시아 및 국내 아동 음악교육지원 등 SM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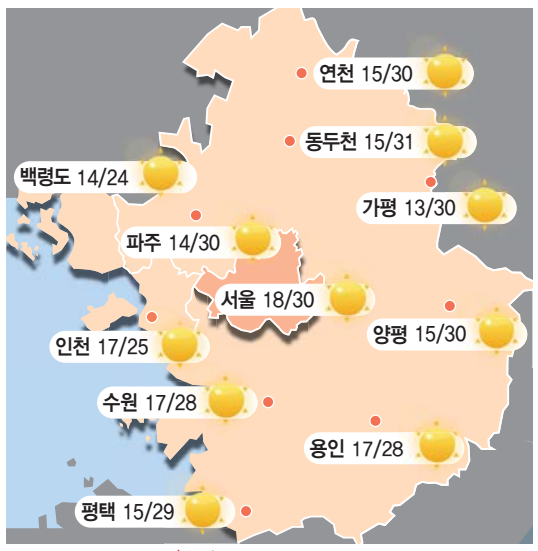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3 | 해짐 / 19:47

6월 1일 음력 : 4월 18일

수도권 날씨 30~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1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평가전이 끝난 뒤 **2018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이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출정식을 위해 관중에게 스마트폰 플래시에 붙이는 '레드라이트 패키지'를 지급한다.

▲ 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일 보스니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에서도 임시 등번호를 달고 뛴다.

▲ **23세 이하(U-23)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엔트리 확보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김학범 감독에 따르면 90% 이상은 현재 멤버와 A대표팀에 가 있는 선수, 와일드 카드가 주축을 이룰 예정이다.

▲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베스트 12'를 뽑는 팬 투표가 내달 4일 시작된다.

▲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8대 총재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임됐다.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박성현**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 비유했다.

▲ 프로야구 kt wiz가 내달 9~10일 홈 경기에서 신인 **강백호**를 주인공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